

開 會 辭

李 相 禹

(西江大東亞研究所長)

尊敬하는 許文道 國土統一院 長官, 鄒堅 中華民國 駐韓大使, 그리고 멀리 臺灣에서 이 會議을 위하여 來韓하신 張京育 國際關係研究中心主任을 비롯한 中國學者 여러분, 또한 이 會議에 參席하시기 위하여 바쁜 日程을 제치시고 나와주신 韓國學者 및 內外貴賓 여러분, 저는 이 會議을 主管하는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를 대표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합니다.

韓中學術會議은 이제 8年の 歷史를 記錄하는 重要한 年例行事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會議은 國土分斷의 苦痛과 對共產主義鬭爭이라는 共通의 苦難과 課題를 안고 있는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의 學者들이 함께 모여 共通되는 學問的 關心事를 論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會議은 이러한 趣旨에 맞추어 中共과 北韓을 比較研究하는데 있어서 많은 貢獻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會議은 着實한 國家發展을 持續하여 先進國에의 문턱에 다달은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의 새로운 國際社會內에서의 位相을 認識하고 이제는 두 나라의 國際發展戰略을 함께 研究하는 새로운 性格을 더한 重要한 會議로 發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會議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8年間 會議準備에 關여했던 저로서는 그래서 아주 感懷가 깊습니다.

中華民國과 大韓民國은 歷史의으로나 文化的, 思想的으로 가장 密接한 關係를 維持해 왔던 나라입니다. 또한 지난 百年間 近代化의 물결속에서 西歐諸國의 強壓과 日本의 侵略 등을 겪는 과정에서 가장 가깝게 서로 協調해 오던 두 나라입니다. 特히 中華民國은 韓國人의 抗日鬭爭을 가장 熱

誠的으로 도와주던 나라였으며 韓國臨時政府의 樹立維持와 大韓民國의 獨立爭取에 있어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歷史的 恩國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歷史的으로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더러 21世紀를 향한 새로운 國家發展途上에서도 많은 점에서 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西歐文化와 傳統東洋文化를 融化하여 새로운 統合文化를 創造해가는 世界史的 使命에 있어서도 같은 課題를 함께 遂行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韓中 兩國學者들간의 共同研究은 아주 必要한 事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韓中年例學術會議가 이러한 事業推進의 基盤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이번 會議의 主題는 “亞細亞 傳統社會에 미친 共產主義의 影響”입니다. 中國社會와 韓國社會에 미친 共產主義의 影響을 多角的으로 分析檢討하는 重要한 主題입니다. 이 會議에는 韓中兩國의 專門學者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成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確信합니다.

中國에서 오신 學者들께서는 비록 짧은 滯韓期間이지마는 韓國과 韓國人을 理解하는데 좋은 契機가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旅程이 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이 會議準備를 위해 애써주신 國土統一院의 여러분과 西江大 東亞研究所의 여러분들의 勞苦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87. 10. 9.